

초등학생의 유튜브 이용과 심리적 적응 :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이진경¹, 김근영^{2*}

¹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²서강대학교 심리학과

Children's YouTube Watching Behaviors and Their Adjustments: Mediation Effects of Parental Attitude, Self Esteem, and School Satisfaction

Jin Gyeong Lee¹, Geunyoung Kim^{2*}

¹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g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유튜브 이용실태와 동기를 확인하고, 유튜브 이용과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 5, 6학년 재학생 238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사용량과 동기,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 초등학생의 과반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의 15.6%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응답해, 초등학생들의 상당 수가 매우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유튜브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애정,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또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초등학생의 유튜브 이용빈도를 부분매개하여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거부적 양육태도 및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경우 유튜브 사용량과 큰 관련성이 없었으며, 매개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생의 과도한 유튜브 이용의 구체적인 심리적 악영향을 밝힌 국내 최초의 경험적 연구로, 초등학생의 유튜브 이용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아동의 유튜브 이용에 있어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관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how much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used the YouTube, and tested whether the overuse of YouTube might be related to adjustment problems such as low parental warmth, low self-esteem, and low school satisfaction. Two hundred and thirty-eight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swered a questionnaire enquiring about their YouTube use, parental practice, self-esteem, and school satisfaction. Results indicated that more than half of the participants watched the YouTube at least one hour per day, and 15.6% of them watched the YouTube more than 3 hours per day.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YouTube watching time and parental warmth, self-esteem, and school satisfaction were found. YouTube watching time also partially mediated between parental warmth and adjustment problems. Parental rejection and overprotection were not related to children's YouTube watching time. These study results can be used as seminal data for developing children's YouTube watching guidelines.

Keywords : YouTube, Internet Addiction, Elementary School Children, Self-Esteem, Parental Attitude

본 논문은 이진경의 서강대학교 석사논문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Geunyoung Kim(Sogang Univ.)

email: king@sogang.ac.kr

Received August 5, 2019

Accepted December 6, 2019

Revised September 4, 2019

Published December 31, 2019

1. 서론

21세기가 되면서 다양한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들이 이용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유튜브(YouTube)라 할 수 있는데, 유튜브는 56개 국가 10억 명의 사람들이 접속하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플랫폼으로, 1분당 100시간이 넘는 동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재생되고 있다[1]. 2018년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어플리케이션은 한국인들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2위부터 6위 어플 이용시간을 모두 합친 시간보다 더 길 정도로 압도적이다[2].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인터넷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국가 중 하나로, 젊은 층들의 유튜브 이용 역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10대 청소년들은 한 달에 평균 약 86억분의 시간 동안 유튜브를 이용하며, 20대는 63억분, 30대는 46억분, 40대는 41억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유튜브 이용 빈도가 높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2018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전에는 없었던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초등학교생의 장래희망 선호도에서 5위로 새롭게 등장한 바 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유튜브가 장래희망 2순위로 나타나는 등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유튜브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면서, 유튜브를 바라보는 언론 및 학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체로 유튜브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긍정과 부정의 양 극단적인 관점이 혼재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유튜브라는 인터넷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 새롭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고, 또 그로 인한 학습효과의 증대가 기대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실제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튜브의 동영상을 전통적인 수업방식에 더하여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은 많이 존재한다[3,4].

반면 모든 매체가 그러하듯이,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 혹은 부적절한 사용은 사용자의 적응지표들과 부적절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유튜브의 과도하거나 자극적인 사용과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밝힌 연구는 아직 없다. 하지만 유튜브 역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이다. 따라서 기존의 인터넷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 혹은 TV와 같은 고전적인 매체의 부적절한 이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유사한 양상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미 20세기 후반부

터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은 무분별하거나 부적절한 인터넷 매체 이용은 여러 가지 적응상의 문제의 예측변인으로도, 또한 결과변인으로도 기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매체 중독 가능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부모와의 애착은 나쁜 편이며[5], 높은 스트레스[6], 낮은 사회적지지[7], 그리고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8] 증상을 보인다. 또 인터넷 과사용은 미래의 적응문제나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도 작용한다[9].

이러한 변인들 중 특히 부모관련 변인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대체적인 기존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개입할수록 자녀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은 낮은 편이었다[10]. 그와 동시에, 일반적인 부모의 애정적 혹은 거부적 양육태도 역시 자녀의 인터넷 중독과는 상관관계를 보인다[11,12]. 따라서 비록 유튜브라는 특정 플랫폼의 사용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발표되어 있지 못하지만, 기존 연구 결과들을 고려하면 유튜브 맥락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부모-자녀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유튜브의 부적절한 사용이 많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로 전반적인 인터넷 사용에 기초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유튜브 이용이라는 특정 상황에 100% 적용할 수 없는 몇 가지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그 근거로 첫째, 인터넷 중독이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대체적으로는 모든 인터넷 매체에서 유사하게 적용되는 편이다. 즉, 인터넷 게임이던, SNS던, 동영상 플랫폼이던, 과도한 사용은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적응과 상관관계가 있다. 하지만 인터넷 프로그램에 따라 그 효과가 유독 두드러지는 등의 가변성 역시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데, TV라는 고전적 매체도 마찬가지로 방영되는 프로그램이 모두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 매체 역시 특정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유저들이 구분되어 있으며, 이러한 유저들의 차이가 각 프로그램의 효과의 독특성으로 이어지곤 한다. 또한 같은 유저라 하더라도 여러 인터넷 프로그램을 다소 다른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의 한 연구[13]에 따르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리고 스냅챗 등의 대표적인 SNS 플랫폼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각기 다른 동기와 욕구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유저들은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편이성’에 주목하였다. 반면 인스타그램의 경우 ‘오락

성'이 사용욕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또한 '정보공유'라는 동기는 페이스북 사용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자기표현'이라는 동기는 인스타그램 사용동기에 있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렇듯 같은 기능을 가진 인터넷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그 효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유튜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보다는 유튜브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먼저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재까지의 많은 인터넷 중독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기나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부모변인의 효과 역시 주로 청소년기의 효과를 중심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보다는 인터넷 사용 시간에 대한 개입과 같은 구체적인 부모의 규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10]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의 효과는 청소년이나 대학생보다는 어린 아동에게 더 강하게 작동하며, 인터넷 과사용에 대한 문제 역시 아동일수록 더 취약하다[11]. 따라서 청소년보다는 아동에 대한 연구가 보다 축적이 될 필요가 있다. 이는 외국도 마찬가지로, 아동의 모바일기기 사용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해당된다[14].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관련 연구가 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기초조사도 안되어 있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양육방식의 효과를 연구함에 있어 상당수의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단일한 변인으로 삼아 이 효과를 검증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애정을 주는 양육과 자녀를 거부하는 양육방식을 '부모 기능'이라는 잠재변인의 하위 요소로 모두 통합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이렇게 부모의 양육태도를 단일 변인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 애정을 주는 부모양육태도와 자녀를 거부하는 양육태도는 모두 자녀의 부적절한 인터넷 사용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가 가장 많이 발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11,12]. 하지만 연구에 따라서는 양육의 차원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상당히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국외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변인이었으나, 긍정적 양육태도는 관련이 없었다[15]. 반면 싱가포르의 초등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종단연구에 따르면 부모 규제와 같은 요소보다는 부모와의 긍정

적 관계가 1년 후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측하는 선행변인이었다[16]. 또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는 긍정적 양육태도만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지만, 아버지는 부정적 양육태도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17].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단순히 단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 세분화하여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이와 같은 근거들에 따라,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에서 수행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유튜브 사용행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고, 주로 어떠한 동기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외에서는 유튜브 중독의 특징에 대한 연구들이 서서히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다[18].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성인들의 유튜브 이용동기에 대한 탐색적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19]. 국내 인터넷 프로그램 중 유튜브가 이용도에 있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기존의 아동 인터넷 중독 연구에서 많이 밝혀진 부모의 양육태도의 효과가 유튜브라는 특정 플랫폼의 사용에 있어서도 적용되는지를 탐색해 보기로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인터넷 중독가능성이 낮았다. 또 인터넷 중독가능성이 낮을수록 여러 적응지표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편이었다. 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를 단일변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았다. 따라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방식과 거부적 양육방식을 구분해 이 변인이 초등학생의 유튜브 사용량을 매개하여 적응변인인 학교적응도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초등학생일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정적인 것이다. 즉, 애정적 양육태도는 낮은 편이고 거부적 양육태도는 높은 것이다. 둘째,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초등학생일수록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도는 낮을 것이다. 셋째, 부모양육태도는 초등학생의 유튜브 사용량을 매개하여 적응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방법

2.1 연구대상자

2019년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S지역 소재 초등학교 1곳을 선정하고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을 실시하기 전 담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설문 목적, 실시 방법, 응답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설명 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도록 조치하였다. 설문 응답시간 평균 20분 정도 소요 되었다. 총 250부를 배포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238부를 본 연구의 최종적인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121명(50.8%), 여성이 117명(49.2%)으로 비슷하였으며, 참여한 대상자의 학년은 4학년 84명(35.3%), 5학년 71명(29.8%), 6학년 83명(34.9%)이었다.

2.2 측정도구

2.2.1 유튜브 이용량과 이용동기

초등학교 응답자의 유튜브 이용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성인용 유튜브 사용동기 척도[19]를 중심으로 수정척도를 제작하였다. 기존 성인용 척도는 '관계추구동기', '재미추구동기', '정보추구동기'로 구분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이 척도를 초등학교 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는 절차를 거쳤다. 그 후 수정본을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배부한 후 초등학교 고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문항인지 여부에 대해 직접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일부 문항에 대해 다시 수정을 가하여, 총 15문항의 초등학생용 설문지로 제작하였다.

척도는 5점 Likert형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계추구동기 측정 6문항 (예, "다른 사람의 반응을 알기 위해"), 재미추구동기 6문항 (예, "색다른 경험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정보추구동기를 측정하는 3문항 (예,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일치도 Cronbach's alpha는 관계추구 .89, 재미추구 .82, 그리고 정보추구 .86이었다.

유튜브 이용량은 단순빈도, 하루이용시간, 주로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간대, 그 시간대를 선호하는 이유 등 4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척도화된 단순 빈도치를 이용하였으며, 다른 측정치들은 초등학생들의 유튜브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기술통계치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2.2.2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조한익[11]이 한국어로 번안한 단축형 EMBU(Enga Minnen Bet raffande Uppfostran: My memories of upbringing)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애정(Warmth), 거부(Rejection), 과잉보호(Overprotection) 등의 총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애정이란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느끼고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양육태도를 말한다(예, "부모님은 나를 많이 칭찬하셨다"). 거부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거부감을 느꼈던 경험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부모님은 명확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내게 화를 내시거나 불쾌해 하셨다" 등의 문항이다. 마지막으로 '과잉보호'는 부모님이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하여 자녀가 구속감을 느끼게 하는 양육태도를 의미한다(예, "부모님은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해서 다른 아이들은 자유롭게 하는 일도 나는 못하게 하셨다"). 각 문항은 '1=거의 드물게', '2=때로', '3=자주', '4=대부분'의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애정 8문항, 거부 7문항, 과보호 8문항의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요인별 문항일치도 Cronbach's alpha는 애정 .81, 거부 .73, 과보호 .6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따로 측정하였으며,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각 하위요인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2.2.3 자아존중감

본 연구의 종속변인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은 한국어판 Rosenberg[20]의 자아존중감 척도(SEQ: Self Esteem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빈번히 사용되는 척도이며, 총 11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일치도 Cronbach 's α 는 .83이었다.

2.2.4 학교생활만족도

또 다른 종속변인인 학교생활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강윤정[21]이 개발한 학교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총 5개 하위변인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너무 많은 설문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영역은 삭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습활동(6문항), 교사와의 관계(6문항), 학교행사 및 특별활동(6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문항일치도 Cronbach 's α 는 .90이었다.

2.3 분석

기술통계치는 피어슨 상관관계를 통해 관계를 측정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19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3. 결과

3.1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연구대상자들의 유튜브 이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유튜브 이용빈도, 하루 유튜브 사용 시간, 주로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간대, 시간대를 이용하는 이유, 유튜브 이용 시 태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에 따르면, 이용 빈도는 거의 매일 사용한다고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주일에 1~3회 사용한다고 28.2%, 1주일에 4~6회가 18.1%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인 초등학교 고학년 중 유튜브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학생은 13%정도로, 대다수의 초등학생이 유튜브를 접해보았음을 알 수 있다. 하루 이용시간의 경우 1시간 미만인 49.6%로 가장 많았다. 즉, 하루에 평균 한시간 이상 유튜브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이 과반수라는 것으로, 초등학생들의 유튜브 이용시간이 상당히 길다고 볼 수 있다. 이중에서도 전체 연구 대상자 중 15.6%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튜브 주 이용시간대는 하교 후인 오후가 54.2%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 날 때마다 이용한다고 20.2%로 오후 시간대 다음으로 많았다.

유튜브 이용시간의 이유 및 활동을 묻는 질문에 대해 상당수의 초등학생들은 하교 후에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예상할 수 있듯이 그 시간대가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기 때문이다(39.5%). 또 딱히 큰 이유 없이 심심하다는 이유도 만만치 않게 많이 응답되었다(37.4%).

또한 조사응답자들의 유튜브 이용 시 태도에 대해 64%의 초등학생들이 집중하여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댓글을 올리거나 동영상 자체를 올린다는 응답도 16%를 넘었다. 이러한 이용행태는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유튜브 이용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Table 1. Children's Behaviors When Playing YouTube

	Questions	No.	%
Watching Frequency	Almost none	31	13
	1 per month	17	7.1
	3 per week	67	28.2
	6 per week	43	18.1
	Everyday	80	33.6
Watching time per day	Under 1 hour	118	49.6
	1 -2 hours	64	26.9
	2 -3 hours	19	8
	3 -4 hours	18	7.6
	Over 4 hours	19	8
I usually watch YouTube during..	Morning	15	6.3
	Afternoon	129	54.2
	Night	31	13
	After midnight	3	1.3
I prefer this time because it is..	Anytime	48	20.2
	Fast speed	3	1.3
	Free time	95	39.5
	When I was allowed	43	18.1
When I watched YouTube I..	Nothing else to do	89	37.4
	Do not focus	26	10.9
	Just listen to sounds	11	4.6
	Focus on watching	152	63.9
	Focus and Leave messages	26	10.9
	Focus, Leave Messages, and Upload movies	14	5.9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주목할 부분은 유튜브 이용 빈도와 양육태도 하위변인 간의 상관관계이다. Table 2에 따르면 유튜브 이용 빈도와 부모의 과보호 및 거부적 양육태도 하위변인간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유튜브 이용빈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은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였다. 이 중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종속변인인 학교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과보호 변인의 경우 대체로 종속변인과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생활만족도와 자존감은 모두 유튜브 이용빈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유튜브 사용빈도가 많을수록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낮았으며, 학교생활만족도와 자존감도 낮은 편이었다.

Table 2. Correlations among YouTube watching time, parental attitude, Self Esteem, and School Satisfaction.

	Corr. YouTube	Corr. SE.	Corr. SS.
YouTube Watching time	.-	-.28***	-.26***
Father Rejection	.08	-.32***	-.25***
Father Warmth	-.17**	.41***	.35***
Father Overprotect	-.06	-.05	-.04
Mother Rejection	.07	-.33***	-.26***
Mother Warmth	-.14**	.39***	.35***
Mother Overprotect	.01	-.16**	-.07
Self Esteem (SE)	-.28***	.-	.28***
School satisfaction (SS)	-.26***	.28***	.-

** $p < .05$, *** $p < .001$

3.2 변인간의 매개효과

부모양육태도가 유튜브 이용을 매개하여 초등학생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앞서 상관분석에서 매개변인 및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된 변인은 애정적 양육태도 뿐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유튜브 이용빈도를 매개하여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았다. 매개효과 분석은 회귀분석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Baron과 Kenny[22]가 제안한 절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치는 Sobel검증 절차를 따랐다.

매개분석 결과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서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Table 3, 4). 학교생활만족도의 경우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유튜브 이용빈도는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17% 설명하였으며 ($F=23.55$, $p < .001$),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유튜브 이용빈도는 학교생활을 17% 설명하였다 ($F=24.01$, $p < .001$). Sobel 검증 결과 아버지의 애정적 매개양육에 있어 유튜브사용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Z=2.08$ $p < .05$), 어머니의 경우 경계선적 통계치를 보였다 ($Z=1.810$, $p=.07$).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했을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매개효과의 경우 역시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Z=2.09$, $p < .05$), 어머니의 경우 경계선적 통계치를 보였다 ($Z=1.94$, $p=.051$).

Table 3. Mediation Effect of Parental Warmth on School Satisfaction through YouTube Watching Time.

	Beta	t.	F
Father Warmth			
Step 1. Warmth → SS	.35	5.74***	32.99***
Step 2. Warmth → YouTube	-.17	-2.55*	6.51***
Step 3. Warmth → SS	.32	5.22**	23.55***
YouTube → SS	-.22	-3.53***	
Mother Warmth			
Step 1. Warmth → SS	.35	5.81***	33.73***
Step 2. Warmth → YouTube	-.14	-2.12*	4.48***
Step 3. Warmth → SS	.33	5.41***	24.01***
YouTube → SS	-.21	-3.56***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 Mediation Effect of Parental Warmth on Self Esteem through YouTube Watching Time.

	Beta	t.	F
Father Warmth			
Step 1. Warmth → SE	.40	6.71***	45.06***
Step 2. Warmth → YouTube	-.17	-2.55*	6.51***
Step 3. Warmth → SE	.37	6.19***	30.28***
YouTube → SE	-.22	-3.62***	
Mother Warmth			
Step 1. Warmth → SE	.39	6.41***	41.12***
Step 2. Warmth → YouTube	-.14	-2.12*	4.48***
Step 3. Warmth → SE	.36	6.01***	28.71***
YouTube → SE	-.22	-3.74***	

* $p < .05$, ** $p < .01$, *** $p < .001$

매개효과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양육태도만이 초등학생의 유튜브 사용량을 매개하여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반면 거부적 양육태도는 딱히 유튜브 사용량과 관련이 없이 적응변인과 상관관계만을 보여주었으며,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유튜브 사용량이나 적응변인들과 큰 관련성이 없었다.

4. 결론 및 논의

유튜브는 한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최근에는 또한 초등학생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유튜브는 특히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유명세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 중 하나이다. 유명세를 추구하는 것이 후기아동기와 초기청소년기의 중요한 경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사용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3].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얼마만큼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실태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튜브라는 특정 플랫폼의 사용실태와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경험적 연구로서 그 가치가 높다.

본 연구에 참가한 초등학생들 중 50.4%는 하루에 1시간 이상 유튜브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에서도 하루에 3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들은 15.6%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정보화진흥원[24]의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3세부터 9세 유아동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6시간, 학업/업무를 제외한 이용시간 평균은 1.0시간 정도이다. 또한 만 10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의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5시간, 학업/업무를 제외한 하루 이용시간 평균은 1.5시간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2.6시간, 학업/업무 제외하면 1.7시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본 연구에서 유튜브만을 하루에 3시간 이상 이용하는 학생들이 15%를 넘는다는 것은 매우 주목해야 할 수치이다. 그리고 연구대상 아동 중 84.5%는 집중해서 동영상 시청하고, 이들 중 10.9%는 댓글을 남기며, 5.9%는 유튜브 플랫폼에 자신의 계정을 만들고 직접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었다. 이는 이들이 단순히 유튜브에 노출되는 것 뿐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유튜브가 초등학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본 연구의 대상자 이외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초등학생의 유튜브 이용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유튜브 이용과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녀의 학교 적응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인터넷 중독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써, 유튜브 역시 과도한 사용은 적응지표들과 부정적인 관련성을 보임이 명확히 드러난

다. 다만 예상과 다르게, 부모의 양육태도의 경우 애정적 양육태도만 확실한 관련성을 보였다. 애정적 양육태도의 효과는 부모가 애정적으로 양육을 할 경우 자녀의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실험결과가 아닌 관계로 인과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부모가 애정적 양육을 통해 자녀의 유튜브 사용량을 줄였다기 보다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의 결여는 자녀의 유튜브 과다사용 가능성을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에 비해 거부적 양육태도와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경우 유튜브 이용빈도와는 큰 관련성이 없었다.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거부적, 애정적 양육태도는 모두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보고된 바 있다[11]. 유튜브 중독에 대한 기존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왜 선행연구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가능성으로, 기존의 부모양육태도의 효과 연구는 대부분 전반적인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였으며, 유튜브라는 특정 인터넷 플랫폼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과도한 사용과 그에 따른 악영향에 대해서는 부모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반면, 특정 인터넷 플랫폼인 유튜브의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과 같은 전반적인 미디어사용량과 부모양육태도를 같이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특정 사이트의 사용량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이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원에 따라 자녀의 매체 이용에 다른 효과를 보인 연구들은 존재한다 [15-17]. 그런데 대체적인 경향 중 하나로, 후기청소년이나 대학생의 경우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 편이었다[11,25]. 반면 거부적 양육태도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결과의 경우 아동이나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가 많았다[16,17,26].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러한 경향에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즉,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매체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아동기보다는 청소년기 이후일 가능성이 그것이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의 경우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은 청소년에 비해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두드러지지 않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이 보고한 부모의 애정정도의 표준편차는 약 .62정도인데 비해, 부모의 거부정도의 표준편차는 약 .42로 편차치가 훨씬 작은 편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거부적 양육의 효과는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청소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거부적 양육태도가 적응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본 연구를 포함한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부모의 거부가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유튜브 사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된 연구로, 한정된 대상을 중심으로 자기보고식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확장된 해석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튜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가 아니었다. 또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떠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튜브라는 특정 플랫폼 사용의 악영향에 대해 밝힌 선구적인 국내 경험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자평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인터넷 중독연구의 결과가 유튜브 이용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적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또한 초등학생의 유튜브 사용빈도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수준보다 많이 높은 편이라는 정보도 새롭게 제시하였다. 어린 연령대의 유튜브 사용은 앞으로도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력 역시 근 미래에 더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결과가 초등학생의 올바른 유튜브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기초자료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S. Yoo, O. Jeong, "The YouTube Video Recommendation Algorithm using Users' Social Category," *J. KIISE*, vol. 42, no. 5, pp.664-670, 2015. DOI: <http://dx.doi.org/10.5626/1OK.2015.42.5.664>

[2] R. Doo, "YouTube Emerges as Top App among Korean Users." *The Korea Herald*, May 15, 2018,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80515000689>

[3] D. Cho, "Blended Learning and Japanese education: Class study which utilized YouTube," *J.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90, no.1, pp.223-239, 2014.

DOI: <http://dx.doi.org/10.17003/illak.2014.90.1.223>

- [4] G. Y. Choi, "Learning through Digital Storytelling: Exploring Entertainment Techniques in Lecture Video." *Educational Media International*, vol.55, no.1, pp.49-63, 2018. DOI: <http://dx.doi.org/10.1080/09523987.2018.1439710>
- [5] L. Lei, Y. Wu, "Adolescents' Paternal Attachment and Internet Use."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10, no.5, pp.633-639, 2007. DOI: <http://dx.doi.org/10.1089/cpb.2007.9976>
- [6] R. Velezmoro, K. Laceyfield, J. W. Roberti, "Perceived Stress, Sensation Seeking, and College Students' Abuse of the Interne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6, no.6, pp.1526-1530, 2010. DOI: <http://dx.doi.org/10.1016/j.chb.2010.05.020>
- [7] N. Yasuma, K. Watanabe, D. Nishi, H. Ishikawa, H. Tachimori, T. Takeshima, M. Umeda, L. Sampson, S. Galea, N. Kawakami, "Urbanization and Internet Addiction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Adult Community Residents in Japan: A Cross-sectional, Multilevel Study." *Psychiatry Research*, vol.273, pp.699-705, 2019. DOI: <http://dx.doi.org/10.1016/j.psychres.2019.01.094>
- [8] S. M. Coyne, L. Stockdale, K. Summers, "Problematic Cell Phone Use, Depression, Anxiety, and Self-regulation: Evidence from a Three Year Longitudinal Study from Adolescence to Emerging Adulthood."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96, pp.78-84, 2019. DOI: <http://dx.doi.org/10.1016/j.chb.2019.02.014>
- [9] R. van den Eijnden, G. Meerkerk, A. A. Vermulst, R. Spijkerman, R. Engels, "Online Communication, Compulsive Internet Use, and Psychosocial Well-being Among Adolescents: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vol.44, no.3 pp.655-665, 2008. DOI: <http://dx.doi.org/10.1037/0012-1649.44.3.655>
- [10] G. Patricia, S. K. Harris, B. Carmen, I. Manuel, R. Antonio, "Profiles of Internet Use and Parental Involvement, and Rates of Online Risks and Problematic Internet Use among Spanish Adolesc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75, pp.826-833, 2017. DOI: <http://dx.doi.org/10.1016/j.chb.2017.06.027>
- [11] H. I. Jo,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Internet Use Motives on Internet Addiction: Self-Control as a Mediator." *J. Adolescent Welfare*, vol.13, no.4, pp. 269-287, 2011. UCI: [I410-ECN-0102-2012-330-002977555](http://dx.doi.org/10.1016/j.chb.2017.06.027)
- [12] L. Caina, D. Jianning, Z. Xiaoling, Z. Qianqian, G. Jingjing, "Internet Addict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The Effect of Parental Behavior and Self-control,"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41, pp.1-7, 2014.

- DOI: <http://dx.doi.org/10.1016/j.chb.2014.09.001>
- [13] S. Alhabash, M. Ma, "A Tale of Four Platforms: Motivations and Uses of Facebook, Twitter, Instagram, and Snapchat Among College Students?" *Social Media + Society*, vol.3, no.1, 2017.
DOI: <http://dx.doi.org/10.1177/2056305117691544>
- [14] H. K. Kabali, M. M. Irigoyen, R. Nunez-Davis, J. G. Budacki, S. H. Mohanty, K. P. Leister, R. L. Bonner, "Exposure and Use of Mobile Media Devices by Young Children." *Pediatrics*, vol.136, no.6. pp.1044-1050. 2015.
DOI: <http://dx.doi.org/10.1542/peds.2015-2151>
- [15] L. Ling, Y. Xuqun, H. Jie, Y. Ruijuan, "Who Overuses Smartphones? Roles of Virtues and Parenting Style in Smartphone Addiction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65, pp.92-99, 2016.
DOI: <http://dx.doi.org/10.1016/j.chb.2016.08.027>
- [16] H. Choo, T. Sim, A. K. F. Liau, D. A. Gentile, A. Khoo, "Parental Influences on Pathological Symptoms of Video-gaming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Prospective Study." *J. Child and Family Studies*, vol.24, no.5. pp.1429-1441. 2015.
DOI: <http://dx.doi.org/10.1007/s10826-014-9949-9>
- [17] N. Y. Kim, H. W. Shim, "Effects of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Students' School Life Satisfaction on Internet Addiction." *Korean J. Youth Studies*, vol.19, no.9, pp.125-147, 2012.
UCI: [1410-ECN-0102-2012-330-002977555](http://dx.doi.org/1410-ECN-0102-2012-330-002977555)
- [18] J. Balakrishnan, M. D. Griffiths, M. D. "Social Media Addiction: What is the Role of Content in YouTube?" *J. Behavioral Addictions*, vol.6, no.3, pp.364-377. 2017.
DOI: <http://dx.doi.org/10.1556/2006.6.2017.058>
- [19] D. Y. Oh, "Effects of Demographic Features, Use Motives and Personality of Audience on Usage of YouTube". *J. Communication Science*, vol.17, no.4. pp. 122-162, 2017.
DOI: <http://dx.doi.org/10.14696/jcs.2017.12.17.4.122>
- [20]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USA, pp. 305-320, 1965.
- [21] Y. C.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Discipline Style Perceived by Children and Level of Children's School Life Satisfac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pp.105-106, 2006.
- [22]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1.6.1173>
- [23] Y. T. Uhls, P. M. Greenfield, P. M. "The value of fame: Preadolescent perceptions of popular media and their relationship to future aspir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48, no.2, pp.315-326, 2012.
DOI: <http://dx.doi.org/10.1037/a0026369>
- [24]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 Survey on Internet Overdependenc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Korea, pp. 97-98, 2015.
- [25] J. Y. Jeong, H. Kim, I. Hay, "Understanding Adolescents' Problematic Internet Use from a Social/cognitive and Addiction Research Framework."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9, no.6, pp.2682-2689, 2013.
DOI: <http://dx.doi.org/10.1016/j.chb.2013.06.045>
- [26] F. Rehbein, D. Baier, "Family-, media-, and school-related risk factors of video game addiction: A 5-year longitudinal study." *J. Media Psychology: Theories, Methods, and Applications*, vol.25, pp.118-128. 2013.
DOI: <http://dx.doi.org/10.1027/1864-1105/a000093>

이진경(Jin Gyeong Lee)

[정회원]



- 2019년 8월 :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육학 석사)

<관심분야>

아동·청소년 상담, 학교 상담

김근영(Geunyoung Kim)

[정회원]



- 1996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06년 5월 : Vanderbilt University, Psychology and Human Development (Ph.D.)
- 2007년 3월 ~ 2011년 8월 :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부교수
- 2011년 9월 ~ 현재 :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발달심리학, 사회인지 발달, 아동심리학